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딱 걸렸네'

도, 전주·군산·익산
완주 일대 집중 점검
업소 16개소 등 적발

감염병 확진자 감소
거리두기 하향 등에 영향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들과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개소와 이용자 4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특사경팀은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제한 이행 실태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영업 행위

에 대해 점검해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개소,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 이상 사

적모임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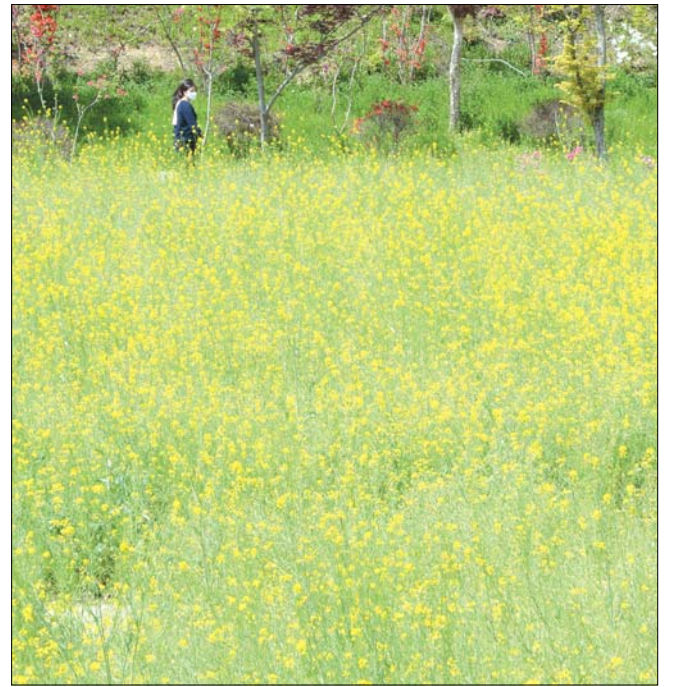
특히,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 타지역 관광객과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몰려와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테이블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활동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들이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에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단호한 법 집행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아름답게 꾸며진 스타정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6일 전주대학교 스타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꽃 사이를 지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100년 전에 세워진 마령면 가미보방 비석 발견

일제강점기 보방 유물로 보기 드문 사례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이 최근 마령면 가미보방비를 발견했다. 이는 약 100년 전인 1921년 세워진 비석으로, 가미보방비는 계남마을에서 석교마을 방향으로 석교마을 못미처(갈매마을 맞은편 제방)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사각 석주 형태로 아래부분이 흠으로 채워져 있는데, 글씨가 드러난 크기는 높이 100cm, 너비 28cm 정도 된다. 비문에는 '마령면(馬嶺面) 가미보방(加米波坊) 설계(設計) 감독자(監督者) 오세열(吳世烈)/대정(大正) 10년(十年) 5월(五月) 일(日) 준공(竣工)'이라고 적혀져 있다.

이에 따르면 비문은 대정 10년 가미보방을 준공했다는 내용으로 설계 감독자 오세열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 비석이 세워진 자리가 가미



(소)보와 가미 제방을 축조한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평지들이라고 하는데, 이를 홍수로부터 보호해 쌀

증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계감독자로 병기된 오세열은 가미보와 제방축조에 중심역할을 한 인물로 추정된다. 오세열은 후에 면장을 역임한 인물로 그에 관련된 자료는 마령 생활사 박물관 앞에 '전면장오공세열 기념비', '면장오세열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면장오세열기념비'에 제방수환이란 문구로 보아 오세열이 가미보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일제강점기 보방에 관한 유물로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덕희 원장은 "가미보방비는 우리 지역의 보와 제방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과기부 평가 '전국 최고'

성과금 21억원 지원받아... 매년 100억 상당 육성 사업비 활용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대덕 특구와 더불어 전국의 연구개발특구 중 최상위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다.

이는 전국 5개 특구 중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4개의 특구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덕 특구는 전북 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앞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전북 특구가 열악한 상황 속에 사실상 전국 최고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특구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전국테크비즈니스센터 전경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확정된 특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인센티브 예산(성과금)을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전북 특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1억원의 성과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매년 지원되는 100억원 상당의 특구육성 사업비에 성

과예산이 추가돼 더 많은 혜택이 도내 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올해 두 번째 전국 최우수 등급을 평가 받으면서 전국 명품특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북 특구 출범 당시 기업 매출 2조4,000억, 고용 1만8,000명, 입주기관 437개에서 2019년 말 기업 매출 4조7,000억, 종사인력 2만명, 입주기관 660개 규모 경제거점으로 성장했다.

또, 지난해 말 전북특구육성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누적 142개사, 첨단기술기업 지정 19개사, 창업 189건, 기술이전 및 출자 336건, 211억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도 전북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약 100억원 규모로 기술인력·연계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기술창업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